

매 2년마다 개최되는 OMCOS (Organometallic Chemistry Directed Towards Organic Synthesis)대회는 나에게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자극제로 오래 전부터 활용하고 있다.

제4회 캐나다의 Vancouver, 제5회 이탈리아 Florence(Firenze), 제6회

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

10년동안 학회에 5번 참석

이번 8회 OMCOS(95. 8.6~8.10)에는 참석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성균관대학 화학과 강석구, 유참모, 경북대 공업화학과 김태정교수와 본인 이 참석하게 됨을 서로 알게 되어 여

제8차 유기합성을 지향하는 유기금속학회

●일시 ... 95년 8월 6일~10일

●장소 ... 美 산타 바바라

본지는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인들의 '국제학술회의 참관기'를 매월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미국 산타 바바라에서 열린 「제8차 유기합성을 지향하는 유기금속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경북대 심상철교수의 참관기를 실는다.
(편집자)



▲회의장에서 발표가 끝나고 휴식시간에 우리측 참석자들이 미국 과학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네덜란드 Utrecht, 제7회 일본 Kobe, 제8회 미국 Santa Barbara시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10년간 다섯번의 참석 덕분에 외국 친구를 많이 얻었을 뿐만 아니라 2년동안 연구한 결과를 평가받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

행에 관계되는 수속은 강교수에게 부탁을 했다. 그런데 학회시작 일주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서류가 반송되어 오면서 미국대사관의 불법비자사건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였다. 각자가 할 수 밖에 없었다.

심 상 철
(경북대 공업화학과 교수)

OMCOS 위원장인 Lipshutz (Santa Barbara)교수에게 사정을 전해서 패스를 받아 그것으로 비자를 얻고 8월6일 강교수, 김교수와 내가 김포공항에서 19시 LA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LA에 도착하니 유참모교수는 우리를 자동차로 Santa Barbara로 이동시켰다. 학술대회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호텔이 전부 1층으로 되어 있어 찾기가 힘들었다. 여장을 풀고 발표장에서 Abstract와 가방, 관련서류를 받았다. 일본을 비롯해 낯익은 친구들이 많이 보였으며 서로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느때 학술대회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요일에 등록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동안 시장만찬을 시장관저 넓은 공원에서 열어 자연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었고 21시부터 23시까지는 포스터 세션이 열렸다. 14시간 이상의 비행으로 우리 동료들에게는 무리한 스케줄이었다.

그러나 호텔 연회장 3개만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알찬 계획을 볼 수 있었다. 대형 연회장 한 곳에서만 구두발표 전부를 진행하고 이웃 2개 연회장은 포스터 세션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교포학자 등 한국인 10여명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참석한 동료학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앞서 소개한 4명 이외에 포항공대 화학과 박재욱교수, 한효화학연구소의 정낙철 소장과 그의 연구원 우리교포 과학자 3명, 유학생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4회때는 혼자, 5회때 3명, 6회때 4명,

7회때 7명이 참석하였다.

1997년 독일 Gottingen의 9회때는 보다 많은 연구자의 참석을 기대해 본다. 기조강연(Plenary Lecture) 7명, 초청강연자 14명, Short Talks 26명, 포스터 2백58명이 발표를 했으며 참석 인원은 8백여명이었다. 그중에서 일본 과학자가 8명이나 발표를 하였으나 우리는 포스터로 발표하게 되어 9회때는 구두발표를 몇명이라도 하자고 참석동료들끼리 다짐도 하였다.

일리노이대학의 Denmark, 미국의 Scripps연구소의 K.B.Sharpless교수, 일본 동북대학의 Y.Yamamoto교수, 벨기에의 L.Ghosez교수, 칼텍의 R.H.Grubbs교수, 스위스 로잔대학 C.Floriani, 프랑스 Paris-Sud대학 H.B.Kagan 등 7명의 기조연설을 듣고 그 학문적 깊이에 감격하였으며 석학들의 학문적 영향력을 간파할 수 있었다. 유기금속화학물은 그야말로 요술방망이와 같은 마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초청강연자중에서도 훌륭한 연구가 많았다.

수준높은 연구발표에 감동

특히 South California대학 화학 및 생화학과 J.M.Tour교수의 「Syntheses of Conjugated Oligomers and Polymers for Electronic and Molecular Electronic Applications」의 강연은 화학인지 예술인지 잠시 착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고 우리 일행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반도체회사 등에서 초청해서 산업응용에 적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며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포스터중에는 스위스의 베른대학 유기화학연구소 R.Keese박사의 「Fenestranes by Transition Metal Induced Cyclization Carbonylation」은 Pauson-Khand반응의 응용인데 5 고리화합물 4개가 한분자를 이룰 수 있는 polycyclization된 것으로 훌륭한 연구로 평가하고 싶으며 우리나라에서도 Pauson-Khand반응의 응용연구는 서울대 장영근교수와 한효화학연구소 정낙철소장도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호텔비가 2백달러라 비싸긴 했어도 동일건물이어서 강·김교수와 함께 강연장 맨 앞줄에 앉아 배워보려는 마음 가짐이랑, 한국의 유기화학에 관한 이야기, 관련 화학자에 관한 이야기 등 등 앞날을 더욱 활기차게 진행해 나가자는 다짐도 하고 박재욱교수 부부, 강·김교수, 본인 및 유학생들은 캘리포니아대학 화학과(Santa Barbara캠퍼스) 신성구교수의 연구실 방문과 태국식당에서 식사후 신교수택을 방문해 위스키를 나누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를 거닐던 추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며 유참모교수의 미국 내의 교통해결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끝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KOSEF-OCRC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①②

